

김현미 장관 ‘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·광역교통청 설립’ 적극 추진 6일 잠실광역환승센터 찾아 관계자 격려·수도권 출퇴근 혼잡 완화 방안 논의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.6일 17시에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상황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.
 -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, 경기도 등 교통담당자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지역의 버스 운행 상황을 공유하고, 수도권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- 김현미 장관은 “7.1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버스 운행 감축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, 다행히도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합심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.”며,
 - “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만큼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노사와 협력해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또한 김 장관은 “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특히,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은 매우 길고 불편한 것이 사실”이라면서,
 - “빠른 시일 내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지자체 간 정책이견을 조율하고, 광역 환승센터 확충 등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 라고 덧붙였다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2018.7.6.(금)